

2007학년도 서울교육대학교 정시모집 논술 문제

감독관확인

수험번호 :

성 명 :

답안 작성 시 유의 사항

- ☒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1,400자 내외(±80자)로 작성할 것.
- ☒ 제목은 쓰지 말고 본문부터 작성하며 완결된 문장으로 쓸 것.
- ☒ 제시문을 그대로 옮기지 말 것.
- ☒ 답안지에 불필요한 표시를 하지 말 것.

문 제

예시문 (가)와 (나)에 공통적으로 함의된 관점에 입각하여 예시문 (다)의 밑줄 친 부분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러한 관점이 야기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이의 해결 방안에 관하여 논술하시오.

(가) 옛날 미국의 어느 산간 지방에 생명력을 지닌 모든 사물들이 함께 살아가던 마을이 있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원인 모를 이상한 일들이 이 마을을 덮으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이 마을은 나쁜 마술적 주문에 걸린 것 같았다. 병아리 떼가 원인 모를 병에 걸렸고 소나 양들이 죽어 갔다. 사방이 죽음의 장막으로 덮여졌다. 자연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것처럼 즐겁게 재잘거리며 날던 새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봄은 왔는데 침묵만이 감돌았다. 울새, 비둘기, 굴뚝새 등 수많은 새들의 노래소리와 더불어 새벽이 밝아오곤 했는데 이제는 죽음의 정적만이 저 들판과 숲과 늪 위에 깔려 있을 뿐이다. 이 참혹하게 찌들어진 세계, 새 생명 탄생의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된 침묵의 세계는 마술도 장난도 적의 침입도 아니며 바로 인간들 자신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 레이첼 카슨의 글에서

(나)

- 전략 -

나는 새벽녘 오리나무 가지에서 노래하는
참새소리를 천상의 소리로 생각하여,
저녁때 둥우리째 집으로 가져왔다네.
참새는 여전히 노래 불렀지만 이젠 즐겁지 않았네,
강과 하늘마저 집으로 가져오지 못한 까닭에.
해안에는 고운 조개들이 놓여 있었지.
마지막 파도의 거품이
조개껍질에 빛나는 진주를 뿌려 주었네.
나는 해초와 거품을 씻어내고
바다가 낳은 이 보물들을 집으로 가져왔다네.
그러나 조개들은 초라하고, 불품없고, 역겨운 것이 되었네.
태양과 모래와 거친 파도와 더불어
해안에 그 아름다움을 두고 온 까닭에.

-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의 글에서

(다) 우리가 가진 문제에 대한 만능의 해결책은 없고, 앓고 있는 병에 대한 만병통치약도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기술적 증후군은 너무나 복잡하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건 생각조차 못할 일이지요. 우리가 중대한 방향 전환을 하거나, 우리의 습관을 완전히 바꾼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술적 모험 자체는 계속되어야 하니까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해독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과학과 기술의 새로운 목적은 끊임없이 생겨나며 그것은 다시 새로운 위험을 양산해 낼 것입니다. 따라서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은 영원한 숙제이며, 그 숙제를 다 해결한다 하더라도 늘 너덜너덜한 조각보 같은 모양새로 남는 운명인 것입니다. 미래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현재 불길한 재난의 그림자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그림자를 알아차린다면 희망의 빛이 있습니다.

- 한스 요나스의 글에서